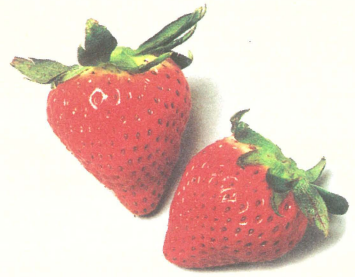


# 딸기



#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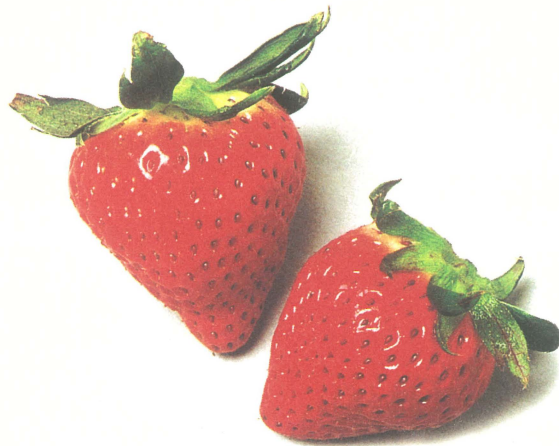
가 여는 세상



함정아 · 전현주

열두번째 딸기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따들아!  
기지개를 펴라!!





여는글



소중한 대학생활에서 여학우들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총여학생회...

호기심으로 때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스레 다가가 본 총여학생회실의 문은  
언제나 굳건히 닫혀있습니다.  
그리곤 그 굳게 닫힌 현문 앞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활짝 열려있는 총여학생회실의 문  
친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시험공부를 같이 하고...  
냉소와 무관심이 아닌 밝은 미소와 소탈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다정함 벗과 같은 총여학생회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  
그 상상이 맞습니다.

2004년 딸기 총여학생회는  
여러분의 끝없는 상상과 요구를 받아 안고  
5천 여학우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딸기와 함께해요!!**



# 정 함정아 (사회복지3)

- 1982년 경상남도 마산시 출생
- 1995년 마산 성호초등학교 졸업
- 1998년 마산여자중학교 졸업
- 2001년 마산가포고등학교 졸업
- 2001년 인제대학교  
'아동·사회복지·가족소비자학과군' 입학
- 2002년 사회복지학과 전공 선택
- 2002년 사회복지학과 '편집 차장' 역임
- 2003년 중앙동아리 '단체' 회장 역임
- 2003년 16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활동
- 2003년 가을농활 농활대장
- 2004년 제열두번째 딸기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입후보

## 추천의 글 - 사회복지학과 3 홍인경

정아랑 알고 지낸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건 말수가 적은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알게될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정아와 얘기를 하거나 함께 과제를 할때에는 정아의 훌륭한 문장력과 설득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간결한 언어로 얘기하기 어렵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정아는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같이 작은 바람,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자기만의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묵묵히 이겨내는 정아, 항상 한결같은 정아.. 나의 친구이지만 닳고 싶은 점이 많은 아이예요. 정아의 인내와 끈기, 긍정적인 시각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열정!!!

함께 있으면 그 아이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아를 믿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 여는글



## 부 전 현 주 (인문문화학부2)

- 1983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출생
- 1996년 대구 북동초등학교 졸업
- 1999년 대구 현풍여자중학교 졸업
- 2002년 대구 화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2년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입학
- 2002년 중앙동아리 사회연구회 '아침햇살' 15기 기장
- 2003년 중앙동아리 '아침햇살' 학습부장 역임
- 2004년 제열두번째 딸기 총여학생회 부회장으로 입후보

### 추천의 글 - 인문문화학부2 최지혜

언제나 어려울때면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말 없으면 함께 아무말 않고 즐거운 일이 있어 신이 날때면 같이 옆에서 신이 났던 친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정말 진실한 친구. 저는 이 친구를 딸기 총여학생회 부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쓴 것을 뺏지 않고 단 것만을 즐기지 않는 현주는 언제나 든든한 친구이자 한층련 안의 동지였습니다. 주위 학과 친구에게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친하다고 또는 어려운 상대라고 해도 비판과 충고는 아낌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배울 것이 많고 신뢰가 가는 친구입니다.

인제대에 있는 5000 여학우의 목소리를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힘있게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곳곳에 있는 여학우들의 불만과 어려움의 상처들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딸들이 기지개를 펴라! 열두번째 딸기 총여학생회 부회장으로 인문문화학부 2학년 전현주를 적극 추천합니다.



인제대 어느 학우의 일기

2003년 0월 0일 수요일

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에 남들이 해야 한다는 외국어 공부에 매달려도 쉽사리 점수는 오르지 않고 직장 이야기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성화에 이젠 용돈 타 쓰기도 미안해집니다... IMF를 잘 이겨냈다고 말들은 많은데, 오히려 실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몸 쓸 때미는 세상을 또 한번 뒤집어 수만의 사람들의 가슴을 해집어 놓고 갔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는 ‘애를 아파트 창문으로 던지고, 자신의 몸마저 던져 자살했다’는 소식이 실렸더군요... 또 당분간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겠지요... 이미 정치인들의 로비 의혹이며 정치자금 문제로 오늘은 무슨 당 어느 의원이 소환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소식도 아니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기에 우리 생활도 너무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각 같아선 파병 안하면 좋겠으나 어디 그게 말대로 됩니까? 이라크를 보면 힘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요즘의 국제 관계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작년에 여중생이 죽었을 때도 두어 번 촛불을 들고 시위에도 동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수선 합니다.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 질 듯 했고,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 논란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유대회에서는 북 응원단 문제로 시끌벅적 했지요. 지금은 정치권에서 대통령 재신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부산에서는 한진 중공업 어느 노동자의 자결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큰 분기점에서 항상 세상은 이랬었고, 지금 분명 뭔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도 명분 없는 이라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북미간에도 위험한 지경까지 가더니 미국이 어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큰 분수령이라 할 80년대가 그랬듯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는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이제껏 방관자였지만, 우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된 나라, 존엄있는 민족, 자주로운 나라는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 혼란과 어수선�함을 청산하고 이제 바로 그 세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타고 앉아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요?

바로 우리 대학생, 청년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 내친구 **한홍련**

저에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죠.

제가 그 친구를 알게된 건 대학에 들어와서 였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참다운 대학생활에 눈을 뜨게 해주었죠. 그 친구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 정말 많은 대학생 친구들을 알고 있더군요. 전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멋지거든요.

친구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먼저 달려가 도와주고, 많은 친구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대변하며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잘못된 정치문제의 개선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친구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곤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통 대학생과는 다른 사람인양 이 친구를 바라보곤 합니다.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법으로 친구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대학생이고, 이 시대의 지성인 대학생의 이름에 걸맞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하루빨리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끔은 힘이 들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언제나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전 그런 친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참, 그 친구가 새시대를 맞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와 월드컵때 붉은 악마를 통해 보았던 이시대 청춘들과 함께 세상밖으로 나와 300만 대학생들과 하나가 되고 싶네요. 전 앞으로도 그 친구가 가는 길이 언제나 당당하고 희망차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 바로 **'한홍련'** 입니다.



그대 세상을 향해 쏘라!

## 호주제 폐지

###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운동

### 1. 여성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입니다.

- 일생동안 약 500회, 생리대 착용기간 평생의 7~8년
- 초경부터 완경기에 있는 여성 약 1300만명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연간 23억개

### 2.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거나 세율을 낮추면서도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리'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3. 화려하고 지나친 광고는 생리대 가격인상의 요인입니다.





딸기와 함께 권리찾기

기본은  
지키겠습니다.!!

등록금 문제 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금 문제 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금 조정은 학생과 교수 학교 3주체가 모여서 올바른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주체가 모두 학교의 주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우리 학우들이 돈을 내는 만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학생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97년 이후 줄곧 인상만 되어 왔던 등록금! 우리 부모님들의 허리는 더 휘어지고, 주름살은 더 깊이 패입니다.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큰 것을 내주고 작은 것을 받아왔던 겁니다. 등록금 협상! 여자라고, 총여학생회라고 뒷자리에 몰려나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우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대변하고 올바른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학우들이 주인 되도록 총여학생회가 기본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딸기 총여학생회가 여러분의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내 여성복지기금을 따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의 부재와 미비한 학생회 사업으로 인해 우리는 받아 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내 여학우휴게실 개선, 운동장 여자화장실 만들기, 여성만의 흡연공간, 파우더 룸, 단대 여학우 휴게실 개설 등등. 여러분의 이해와 요구 등을 수렴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등록금내 여성복지기금을 따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 여학우 휴게실 리모델링

- 여휴는 우리가 책임진다.  
08:00 열기, 21:00 닫기, 청소완비
- 지하에 있지만 혼자가기 무서웠죠?  
여학우 휴게실내 **샤워실 개보**
- 잠방 침대 보수 또는 교체, 매트리스 점검.  
이불 한달에 한번 꼭 세탁
- 잠방 방음벽 설치.
-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여성잡지 및 도서 구비
- 여휴내 화장지, 생리대 자판기 설치
- 파우더룸 개선(드라이기 설치)
- 단대 여학우 휴게실 개설

여학우 휴게실,  
내가 바로 디자이너!!!

더 나은 여학우 휴게실을 위한 리모델링 디자인, 새이름 공모 등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 딸기 총여학생회 일꾼 실명제 실시!!

딸기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위해 딸기 총여학생회 일꾼을 표시하는 이름표(딸기 캐릭터)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딸기 일꾼들에게 모두 말씀 해 주세요.

보고싶다. 친구야!



상상만해도 즐거운 만남.  
이북의 여대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할까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같은 땅 한반도 안에 살면서 한반도 우리도 만나보지 못한 이북의 여대생 친구들!! 2002년10월 16일~17일 금강산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지금, 대학에서는 금강산 모꼬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북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이북 여학우들 함께 만나요.

당당한 도발!  
월경 데스티벌!!!

당당한 그녀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여학우 가요제, 反성폭력 문화제,  
여성영화제 등등...  
인제대 여학우들은 다 모여라!!

더하기

● '딸기신문' 정기발행

딸기신문을 통해 인제대 여학우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사회속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여학우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딸기 복덕방 깨끗한 방, 룸메이트 구함... 이제 총여로 문의하세요!!

● 생리대 자판기 증설 및 확실한 관리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항상 텅비어있는 생리대 자판기!  
딸기 총여가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 상비약 구비 두통, 치통, 생리통... 총여에서 화~악 없애드립니다!!

●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 스타일 구겨지죠~  
총여에서 '양심우산'을 빌려드립니다!!

성폭력 학칙 제정!



「모 동아리에서 모꼬지를 갔다가 한방에서 자게 되었다. 한 여학생이 먼저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선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한순간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누웠다. 이후 동아리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유아무야 넘어갔고, 그 여학생은 정신적 고통과 분노로 결국 동아리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모꼬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학생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 술에 취해 있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참고 있을텐가? 언제까지 혼자만의 비밀로 간주하고 있을텐가?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폭력의 거의 80%는 아는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진다. 대학내에 이런 폭력들이 이루어 졌을 때 사회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같은 동아리라면 결국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이 될 것이다.

학내에서도 이런 성폭력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학칙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지금처럼 성이 과도하게 억압되고, 과도하게 예찬되는 극단적인 문화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제대 안전지대화

1.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학내의 성인식을 바로잡고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과 함께 꼭 성폭력 규제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2. 성폭력 신고센터와 성상담을 할 수 있는 성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3. 성교육,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의 의무화, 정기적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과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은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과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4. 가로등 증설

A동 기숙사 뒤쪽 벤치, 운동장 뒷길, C동 뒷길, 켜지지 않는 가로등 점검



여대생 취업 바늘구멍 넓히기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2003. 10. 30(목) 14:00-17:00  
창원컨벤션센터 체육관

1. 성차별의 고용을 근절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여성에게만 제시하는 것은 남녀 고용평등법 제 6조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차별에 해당한다. 총여학생회에서 불평등고용의 문제를 신고접수 받고 여학우에게 불평등 고용의 사실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등 연대단체를 만들어 함께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2. 저학년을 위한 취업설명회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취업이 유리한 직종이나 전문직종의 안내 등의 내용으로 취업설명회를 열겠습니다.

3. 여학우의 적성검사 정기적 실시

우리학교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딸기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위해 '여학생 적성검사'를 매학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여학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적성을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취업관련 각종 강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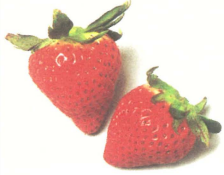
영어, PC통신, 워드 프로세서, 캐드... 요즘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죠. 딸기 총여학생회는 보다 쉽고 값싸게 학교에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취업관련 각종 강좌를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직장!  
딸기 총여학생회가 찾아드립니다.

학교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셨다  
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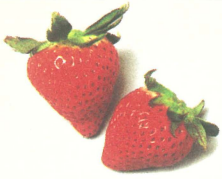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시간의 다  
양한 취업정보를 알려드릴수 있  
는 **취업상황판**을 만들겠습니다.





# 딸기 메모장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딸기 메모장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 투표합시다!!

**투표일** : 11월 19~20일

**투표장소**: [A동] 보건안전/ 의용공학/ 식품과학

[B동] 의예/ 간호/ 환경시스템

[C동] 데이터/ 사회체육/ 컴퓨터응용/ 유아/ 가족소비자/  
사회복지/ 특수교육/ 언론정치/ 디자인

[D동] 법학/ 인문문화/ 경영/ 국제어문/ 국제경상/  
보건행정/ 경영통상(야)

[E동] 나노공/ 기계자동/ 전자정보/ 컴퓨터공/ 신소재/  
산업시스템/ 건축/ 토목

[F동] 임상병리/ 생명공/ 물치/ 작치/ 음악

**딸들이 지지개를 퍼라!! 열두번째 딸기 총여학생회  
언제나 여학우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